

2026년 8월 박상훈, 조미선,
박강이 가정의 케냐 선교 소식



마태복음 13장 31-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갓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 기도제목

1.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거리아이들이 본드를 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오랜 고민끝에 고등부를 직접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큐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가 되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여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이번 중고등부 학부모 예배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기도해주세요.
5. 저희 가정이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케냐에 돌아오자마자 한국에서 온 단기팀을 맞이하고, 중고등부 방학학교와 교사세미나를 숨가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만난 현지 사역자들과의 뜨거운 포옹과 반갑게 맞아주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 아직 시차는 적응이 되지 않아 몸은 피곤하였지만, 영혼이 즐겁고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 현지 사역에 힘쓰고, 더욱 힘껏 안아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며,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강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1차, 2차, 3차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여정을 떠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희 가정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 어린이 예배



마을 전도를 주님의 은혜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만으로 5-6살 되는 아이들부터 전도를 나갔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여 자신들보다 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훈련하였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중고등부 예배



이번 중고등부 방학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수업과 말씀 암송, 성경읽기, 모닝채플, 과학교실, 한글교실, 코딩교실, 손뜨개질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글교실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밥 만들기와 한복 입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신나해하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두손을 모으고 90도 절을 하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중고등부 교사들 몇몇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중고등부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줄 교사가 필요했는데, 몇몇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 기도함으로 결단을 내리고 케냐에 돌아오자마자 실행하였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불만을 갖고 돈을 요구하여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단단히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부를 직접 맡아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말씀을 전하고, 큐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세미나

이번 교사 세미나에는 내년에 청년이 될 고3 학생들 몇몇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400년간의 침묵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지만, 여러 강대국의 나라들을 움직이셔서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 예수님의 사위 - Street Boys 사역



한국에 있을 때 온라인으로 사역자 회의를 하였는데, 사역자 로니타가 거리아이들이 애타게 바바그레이스(박상훈 선교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를 찾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로니타도 바바그레이스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케냐에 도착하여 거리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전보다 더 본드와 방기(대마초)를 하는 것을 보고 박상훈 선교사는 한동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저 영혼들을 어찌해야하나요...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학교를 보내자니 본드를 끊고 보내야하는데, 본드를 끊도록 하자니 아이들의 심터가 필요하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리 아이들이 본드를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태권도팀



강이는 이번에 기증받은 띠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 참 기뻐하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띠를 바꿔주니 아이들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한단계 레벨업 되었다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태권도팀과 나중에 메디컬팀을 구성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아픈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꿈들이 현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